

'강한 경제 전주' 위해 관·학 뭉쳤다

우범기 시장, 지역 6개 대학 총장과 '민선8기 전주시-대학 상생협력 위한 총장 간담회' 가져

'강한 경제'를 민선8기 전주시정 목표로 내세운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역 6개 대학 총장들과 만나 전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는 21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김찬기 예수대학교 총장, 정상모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전주시-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시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 총장들과 관·학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소멸론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과제인 전주형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대대기업 유치 △금융공공기관 이전 △중소기업 육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주시는 21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 박병춘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김찬기 예수대학교 총장, 정상모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전주시-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을 조성하겠다는 민선8기 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시-대학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인재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캠퍼스혁신파크 및 산학융합플라자 운영 TF △우수엔지니어링 및 국가출연연구소 유치 협력 △

청년 인구 이탈방지 제도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주문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대학 협력 △관학산 공동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이었다.

시는 향후 6개 대학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발

전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지속성과 지역의 인재들을 적극 키워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 기업과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면 '강한 경제 전주'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만족도 ↑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5.8% · 지속적 이용 의향 97.4%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정가의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이용자 만족도가 95.8%에 달하는 나타났다.

전주시는 지난달 7~13일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이용자 1893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책콩20'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과 '향후 온라인 서점 대신 지역서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각각 97.4%와 99%로 높게 나타났다. 이 서비스가 지역서점의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 결과 도서 구입 시 20% 할인 혜택을 받고자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은 전체의 75.1%로 집계됐다. 책콩20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도서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과 '지역서점 이용이 늘었다'는 응답은 각각 78%와 87.8%로 집계됐다. 이 서비스 시행 이전 도서를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점 및 대형서점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73.2%로 조사됐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서비스에는 현재까지 1만3100여 명의 시민이 가입했으며, 이들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도서 구입 비용을 할인받았다. 책콩20 참여 서점들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이용자는 "온라인 도서 구입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배송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과 인기도서 위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도서 선택의 폭이 좁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책콩20'을 이용한 후에는 지역서점에 방문해 큐레이션 도서 구입하는 등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재미가 생겨 앞으로도 '책콩20'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작년 11월 시행된 만족도 조사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시의 정책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서비스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열린시민강좌' 2년 만에 재개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서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초청 개최

전주시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전주 열린시민강좌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된 지 2년 여 만에 다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27일 오후 7시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를 강사로 초청해 '2022년 전주 열린시민강좌' 첫 강좌를 개최한다.

전주 열린시민강좌는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05회 동안 매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전문강의로 유익한 정보와 흥

미로운 지식을 전달하며 전주시민들의 인문학 시민강좌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국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중단됐다.

첫 강좌에서는 염승환 강사가 '돈과 투자 그리고 부자되기'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염 이사는 유튜브 경제 채널 1위 '삼프로TV'에서 일일시황을 독자들에 알기 쉽게 전달하며 큰 인기를 얻었으며, 유튜브 '포텐드' 채널을 이끌며 한국경제TV·매일경제TV 등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이날은 강좌 시작 전 문화공연 시간에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애(Sorae)의 수준 높은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2년 여 만에 재개된 올해 '전주 열린시민강좌'는 이날 첫 강좌를 시작으로 매월 1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장소도 전주시청 강당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으로 변경됐으며, 시간대도 기존 낮 시간에서 저녁시간(오후 7시)로 옮겨졌다.

전주 열린시민강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선착순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전주 열린시민강좌는 경제, 생활,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국내 유명강사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 강의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강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주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전주 열린시민강좌는 7월 첫 강좌에 이어 △채사장 작가(8월 24일) △이준영 교수(9월 14일) △이수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10월 26일) △이기연 이기연 오페라 연구소 대표(11월 16일)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 진행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생활 속 곳곳에서 비대면 처리가 증가한 가운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인 '나도한다! 키오스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에는 앞서 지난 5월 전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디지털·성인문해교육 강사 중 사전 교육을 받은 11명의 강사들이 참여해 실제 크기의 교육용 키오스크를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이용방법 등을 알리고 있다.

교육 내용은 △스페스트푸드점, 카페 등에서 주문하기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기 △열차예매하기 △병원 접수



수와 수업하기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상반기 아하과 노인복지관 등 디지털 정보 취약 계층이 많은 공간을 우선적으로 교육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11개 기관에서 32회를 요청해 당초 계획인 25회를 초과한 상황이다. 시는 현재 계속되는 교육 요청으로 추가 접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50대까지 확대

전주시보건소, 3차 접종 완료 후 4개월 경과 1963~1972년생 대상

1963년에서 1972년 사이 태어난 50대도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기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코로나19 예방접종 4차 추가접종을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실

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추가접종은 코로나19 재감염 및 신종변이 유행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접종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120일이 지난 4차 접종 대상으로, 사전예약 및 의료기관 잔여백신을 이용해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또는 1339에서 본인 또는 대리로 가능하며, 접종은 예약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잔여백신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예약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도 4차 접종 대상이며, 접종 시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 의사의 확인 및 상담 후에 접종을 받으면 된다.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감염취약시설로 대상

자 등록 후 촉탁의 방문 또는 의료기관 예약을 통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중 이미 코로나에 확진됐더라도 확진 후 4개월이 지난 시기에 접종을 할 수 있으며, 아직 4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0세 이상 및 기초접종 미완료자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코로나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 개최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21일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 학부모 등 40여 명을 초청해 '한발 더 멀리 뛰는 세상'을 주제로 야호 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

야호아카데미 강연회는 지역 내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강연 기획부터 강연자 발굴, 홍보, 진행까지 시민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강연회에는 금융경제 교육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김원규 씨와 안성군 야호교육통합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삶의 경험과 교육 노하우'를 주제로 참석자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37년간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한 김원규 씨는 퇴직하고 나서도 항상 직장인처럼 100세 시대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기



위에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는 "금융을 좌우명으로 삼고 '열정, 창의, 소통'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왔으며, 내가 만들지 않는 인생은 없고 역경이 없는 인생도 없다"면서 전주시민들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했다.

이어 안성군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인생이라는 희노애락의 바다에서 기쁘고 멋지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윤상 기자

장애학생 구강건강 증진 '맞손'

전주시보건소-전주시치과의사회-전주은화학교, 협약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와 전주시치과의사회 행복동행봉사회(회장 조세열), 전주은화학교(교장 박효수)는 21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장애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철치료 등 폭넓은 지원과 전문성 향상 등 은화학교 구강보건실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예방진료(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치과진료(레진, 발치, 잇몸치료)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진료 및 지원 △전동 칫솔 대여사업 등 구강관리 습관 형

성을 위한 개인별 교육 △치솔 치아 구비환경 조성 △진료 시 행동조절 등의 문제로 진진마취가 필요한 저효수)는 21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주시치과의사회 행복동행봉사회는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치료 진료 접근성 및 전문성을 높여 구강 가능 유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01년 설치된 은화학교 구강보건실은 일반치과의원과 똑같은 장비·시설을 갖췄다. 보건소는 그동안 은화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구강검진, 치아홈메우기, 스케일



링, 충치치료 등 다양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장애학생의 집단생활 시설인 학교에서 구강건강을 위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구강질환 예방과 초기 발견, 치료,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변화 등을 통해 구강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은화학교 구강보건실을 기존보다 활성화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강건강 형평성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장애 학생의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는 21일 소방 출동 시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도로가 좁고 인근 주차장 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서부신시가지, 임실시장 및 터미널, 한옥마을 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차량과 소방공무원이 참여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출동지령에 따라 소방차 길 터주기 합동출동훈련(공동 △서부신시가지 등 소방차 진입장에 구간 홍보 방송 △상승정체구간 소

방차 진입 및 통행훈련 △소방차 전통시장 진입훈련(관내 전통시장) △화재 경계지구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등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으로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기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자